

2024 경기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심의평

2024년 경기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에는 총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 상주단체로 10년 이상 지원받은 곳도 있었으나 신규 신청 단체의 수가 유독 많은 것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지역의 공연장이 우수한 단체와 협업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에 소개하고, 단체는 안정된 기반 아래 신작과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단체와 공연장이 충분한 고민을 거쳐 지원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극 분야는 작품의 우수성과 단체의 역량을 두루 살피었으며,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주연차가 있는 단체의 경우 그동안의 사업 성과도 반영하였으며, 신규단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기획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타당한지 등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상주단체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협업 의지와 지원 프로그램을 두루두루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상주단체와 공연장과의 협력관계, 신작 및 레퍼토리 공연 기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상주를 통한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작업을 도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음악 단체의 기획력이 과거에 비해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연주 역량이나 창작 역량을 키우며 공연장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획도 있었던 반면, 기획 자체는 정교했으나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음악가들이 이 사업을 통해 음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사업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무용 분야는 신작에 대한 창작력과 1년 간 상주단체로서의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연장 여건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작품성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발과 무용 장르 관객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선명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술적인 성과와 교육적인 가능성도 고려하였고, 다른 장르와 차별성을 둔 기획에 강점을 제시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연기획 분야에서는 단체의 역량은 물론, 단체와 공연장의 협력 정도의 긴밀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르적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기획 역량이 상주단체 사업을 통해서만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 공연장과 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획을 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예술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단순 기획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 곳과 기획의 조밀성이 떨어지는 단체에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예술자원이거나 관객 상황, 도시 환경 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진 기획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존 상주단체는 이전년도 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신규 단체는 지역 및 장르 등을 안내하여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여부,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상호 협력 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국내를 대표하는 공연단체들의 지원이 돋보인 만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이 단체의 지속가능한 레퍼토리 발굴과 지역 공연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분야의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각각의 심의위원들이 사전 제출한 사업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통해 단체와 공연장의 기획과 준비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진지한 질의응답을 통해 최선의 단체를 뽑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와 공연장들이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얻기 바라며, 아쉽게 이번 기회를 얻지 못한 팀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2.23.

심의위원

박병성 (공연한오후 대표)
이나리메 (음악평론가)
김혜라 (무용평론가)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엄국천 (남산국악당 총괄기획실장)